

네덜란드 농업 현황 *

윤성은 · 김수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네덜란드는 안정적인 산업 관계, 적정 수준의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을, 상당한 무역 흑자 등으로 유로존 내 6위 경제대국이다. 특히 노트르담 항구와 암스테르담 항구는 유럽 무역 및 운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¹⁾ 네덜란드의 주된 산업은 식품가공업, 화학제품업, 석유 정제업, 기계 및 장비업 등이다(CIA, The World Factbook).²⁾ 네덜란드는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에 특화하여 네덜란드 경제의 원동력인 동시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754억 달러, 2012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1/4을 담당하고 있다. 채소 중 토마토는 세계 1위 수출국으로 2012년 180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세계 토마토 수출의 약 22% 수준이다.³⁾ 이렇게 네덜란드는 비옥한 평지와 온화한 기후에 더해 유럽 유통의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세계 농업을 이끌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네덜란드의 농업 현황을 농업인 구조 및 품목별 생산과 무역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graceyoon@krei.re.kr, 02-3299-4393).

1) 노트르담 항구의 2011년 환적(trans-shipment)물량은 4억3,460만 톤으로 유럽의 가장 큰 항구임(Holland, 2013).

2) 관련 사항은 CIA 네덜란드 소개를 참조(<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l.html>).

3) 관련 사항은 본 사이트를 참조(<http://www.hollandtrade.com/media/news/?bstnum=5351>).

2. 거시 경제 동향

2012년 기준 거시 경제 동향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네덜란드 국토 면적은 37,354km²이며 총 인구는 16,730,348명이다. 2012년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6,006억 유로로 1인당 GDP는 35,856유로(한화 약 5,127만 원)이다. 네덜란드 경제규모는 세계 18위, 유로존 국가 중 6위로 EU 27개국 총 생산액의 4.7%를 차지한다(IMF, CIA). 1인당 GDP는 EU 27개국 평균보다 30% 높은 수준으로 2012년 기준 세계 상위 14위이다(IMF). 2012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165.8%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6년 이래 처음으로 -3.7% 하향 성장하였다. 2010년 1.6%, 2011년 1.1%로 소폭 성장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1.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저성장 추세이다. 네덜란드의 산업은 농업 2.8%, 공업 및 제조업 24%, 서비스업 73.2%로 이루어져 있다(CIA).

2012년 네덜란드의 총 수출액은 5,247억 유로로 세계 8위 수출국이며, 총 수출의 13.78%를 차지하는 농식품 수출액은 723억 유로로 세계 2위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연료, 농산품 등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 교역국은 EU내 국가로 독일(26.3%), 벨기에(14.1%), 프랑스(8.8%), 영국(8%), 이탈리아(4.5%) 등이

표 1 2012년 네덜란드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인구(2012년 1월 1일 기준)	16,730,348명
면적	37,354km ²
통화	유로화(Euro)
명목 GDP(현재가격)	6,006억 유로
1인당 GDP(현재가격)	35,856 유로
1인당 GDP(구매력)	33,210 PPS
소비자물가지수(HICP)	2.8% 연간변화
실업률	노동력의 5.3%
수출(재화 및 서비스)	5,247억 유로
수입(재화 및 서비스)	4,716억 유로
농식품 수출	723억 유로
농식품 수입	473억 유로
경상수지	전체 GDP 대비 8.2%
정부재정수지	전체 GDP 대비 -4.0%
정부총부채	전체 GDP 대비 71.2%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다. 2012년 네덜란드 총 수입액은 4,716억 유로로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연료, 농산품, 의류 등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13.9%), 중국(12%), 벨기에(8.4%), 영국(6.4%), 러시아(6.4%), 미국(6.1%)이다. 네덜란드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7.7%의 하향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0년 11.2%, 2011년 3.9%, 2012년 3.3%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측면 또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trade balance)는 2012년 기준 GDP의 8.8%를 차지한다.

3. 농업 연망

3.1. 농업 경제 전반⁴⁾

2011년 기준 네덜란드의 농식품 경제활동은 대략적으로 국내총생산과 고용의 10%를 차지한다<표 2 참조>. 2011년 농업 전체 고용 노동력은 총 36만9천 명⁵⁾으로 2001년의 42만 명에 비해 약 12% 감소하였다. 농업에서 가장 큰 부문은 축산관련 산업으로 2011년 기준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고용에서 각각 30%와 34%를 차지한다.⁶⁾ 식품 및 음료산업에서는 2010년 4,355개의 업체가 15만5천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약 59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한편 농업 1차 산업 총생산액은 2012년 기준 265억 유로이며 종사자 수는 약 19만8천 명이다.

표 2 2001~2011년 네덜란드 농업의 총 부가가치 및 고용률

구 분	총 부가가치 ¹⁾ (10억 유로)		고용 (천 명)	
	2001	2011(p)	2001	2011(p)
농업 전체²⁾	40.6	52.0	719	675
국가 전체 GDP 대비 비중	10.2%	9.9%	10.8%	10.0%
조경, 농업 서비스, 산림	3.8	4.1	72	48
국가 전체 GDP 대비 비중	0.9%	0.8%	1.1%	0.7%
외국산 농업 원재료	15.3	22.1	227	258
국가 전체 GDP 대비 비중	3.8%	4.2%	3.4%	3.8%
가공산업	6.6	8.8	74	67
공급	4.0	5.6	69	74
유통	4.7	7.7	84	117

4) 본 내용은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LEI)의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를 참고하여 작성함.

5) 국내 농업 원재료 사용 기준.

6) 국내의 원재료 사용 기준.

표 2 2001~2011년 네덜란드 농업의 총 부가가치 및 고용률 (계속)

구 분	총 부가가치 (10억 유로)		고용 (천 명)	
	2001	2011(p)	2001	2011(p)
농업 전체 (국내 농업 원재료 기초)	21.5	25.8	420	369
국가 전체 GDP 대비 비중	5.4%	4.9%	6.3%	5.5%
농업 및 원예	7.6	7.0	188	151
가공산업	3.2	4.8	50	38
투입요소 제조업	8.1	10.8	136	125
유통	2.6	3.2	46	55

p: preliminary(예비치).

주: 현재가격 기준.

주요: 국내외 농업 원재료 기초(조경, 농업 서비스, 산림, 카카오, 주류, 담배 포함).

자료: LEI,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Summary*, LEI.

네덜란드의 농식품산업별 고용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체 산업의 순 매출액에서 농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21.7%로 전체 산업 고용의 17.4%를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은 크게 투입재산업 및 가공산업,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표 3 2010년 네덜란드 식품 및 음료 산업 주요 지표

구 분	산업체 수	일자리 수 (천 개)	순 매출액 (백만 유로)
전체 산업	45,565	893.6	268,891
식품 및 음료 산업	4,355	155.6	58,376
그 중:			
가축 도축 및 육가공	495	23.5	8,209
- 도축(기금류 도축장 제외)	270	9.6	3,870
- 기금류 도축	50	5.6	2,074
- 육가공	180	8.3	2,265
어육가공	125	3.2	704
채소 및 과일 가공	140	9.1	4,474
식용유 및 지방	35	2.8	5,058
낙농	275	13.7	8,845
제분	100	3.3	2,010
빵 및 기타 곡물제품	2,345	48.0	4,155
동물사료	175	8.0	6,194
초콜릿 및 제과	125	7.6	4,122
음료	165	8.3	4,698
담배	15	3.2	3,207

자료: LEI,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Summary*, LEI.

3.1.1. 투입재 산업(Supply Industry) 및 가공산업

네덜란드는 중요한 비료 생산국으로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생산한다. 2011년 네덜란드는 150만 톤의 질소비료와 12만2,500톤의 인산비료를 생산하였고 생산량 중 90% 이상이 수출되었다. 네덜란드의 비료산업은 농업 분야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축산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비료산업은 약 1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고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료산업은 식품 및 음료산업 내 낙농업과 가축 도축 및 육가공 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 규모가 큰 산업이다. 사료 산업은 상위 두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사료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돼지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한 시장 규모의 축소로 기업들의 합병과 인수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산업의 주된 제품은 돼지사료(40%), 가금류 사료(27%), 소 사료(24%) 등이다. 2011년 기준 네덜란드의 사료산업은 연간 약 1,450만 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EU생산량의 10% 미만을 담당하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이 EU내 가장 큰 사료생산국이며 네덜란드는 6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온실 건설산업은 외국에서도 활발하여 총 매출액의 약 절반 정도를 서유럽에서 벌어들인다. 또한 러시아, 터키, 멕시코, 동아프리카, 극동지역에도 네덜란드의 온실 건설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네덜란드의 낙농업 순 매출액은 88억4천5백만 유로로 약 1만3,700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네덜란드의 낙농회사 A-ware Food Group과 뉴질랜드의 Fonterra가 네덜란드에 유제품공장을 세우는데 협업하기로 하였다. 네덜란드의 A-ware그룹은 치즈 제품의 숙성, 슬라이싱, 포장, 저장, 운송에 특화되어 있다. 이 기업은 약 1만7천 명의 직원이 연간 20만 톤의 치즈를 가공하여 2012년 12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다.

가축 도축 및 육가공 산업은 네덜란드 농식품산업에서 낙농업 다음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2010년 순 매출액 82억 9백만 유로, 2만3,500명의 일자리를 고용하고 있다. 이 산업 또한 사업체 간 합병 및 인수가 활발하여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3.1.2. 도매업 및 소매업

약 1만4천개의 사업체, 11만 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연간 1,030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리는 농식품 도매업은 농업분야의 핵심 분야이다. 그 중 식품 도매업이 연간 670억 유로의 매출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농산물과 축산 부문은 네덜란드 외부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산물 도매업 사업체는 평균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하며 600만 유로의 매출액을 보인다.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55%) 1인사업체이며 단지 15개 업체만이 100명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식품도매업은 평균 10명 이상의 직원으로 900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린다. 식품도매업은 10여개 대규모 사업체들이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어 과점시장의 성격을 보인다.

식품 및 음료 소매업 부문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2.3%의 매출액 신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2.2%의 가격 상승과 0.1%의 소비자 지출액 상승에 기인한다. 전체 소매업 부문에서 슈퍼마켓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전체 가구지출액은 2011년 1% 증가하여 2,710억 유로를 약간 넘었다. 그 중 식품 및 음료 소비액은 약 410억 유로로 전체의 15%를 차지하였다.

3.2. 농업의 지역 분포 연왕)

2012년 네덜란드의 농지 면적은 1,842천ha로 2011년에 비해 17천 ha(-0.9%)가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네덜란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농지(농업 및 원예)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80~2012년 사이 농업경영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는 12개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다<그림 1 참조>. 네덜란드는 벨기에, 독일과 각각 450km, 577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서쪽으로는 북해와 접해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농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지이며 노지원에면적과 곡물 재배면적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감자 재배면적 또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지이용 유형⁸⁾ 및 농업경영체별 유형⁹⁾으로 나타난 네덜란드 농업의 공간분포는 지역적 토질뿐만 아니라 역사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프리슬란드(Friesland)와 흐로닝언(Groningen)의 연안 지역과 에이셀미어폴더스(IJsselmeerpolders), 자위트홀란드(Zuid-Holland) 섬, 노르트브라반트(Noord-Brabant) 서쪽의 비옥한 식토(clay soil)에서 재배되고 있다. 시설원예는 서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날씨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참조>.

7) 네덜란드 농업의 공간 분포는 <http://www.compendiumvoordeleefomgeving.nl/indicatoren/ni2119-Agrarisch-grondgebruik.html?i=11-61>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함.

8) 농지 이용은 초지, 감자, 시리얼, 사탕무, 기타곡식작물, 사료, 시설원예, 노지원예 등 8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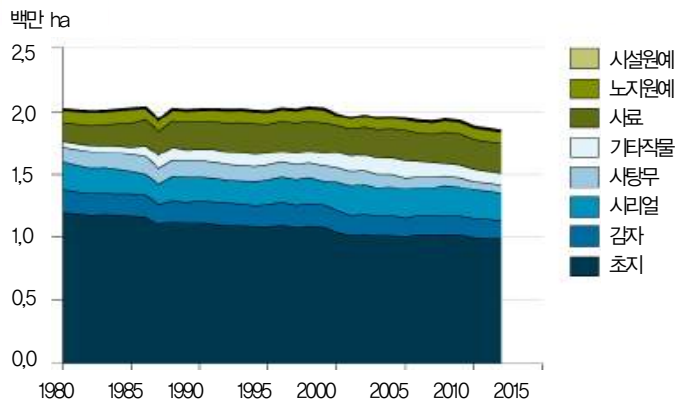
9) 농업경영체는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품목에 따라 곡식경작(arable farms), 원예(horticulture), 영년생작물(permanent farms), 방목형 축산(grazing livestock), 집약형 축산, 복합(combined)농업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 네덜란드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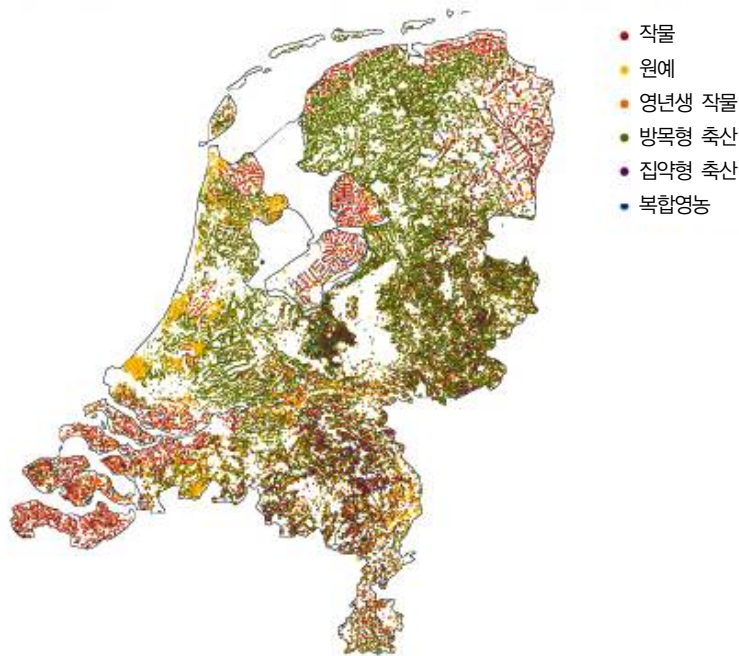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Netherlands_province.

그림 2 1980~2012년 네덜란드 농지 유형별 면적 변화



자료: LTO Nederland Fact Check(2012).

그림 3 농업경영체 유형별 농업 및 원예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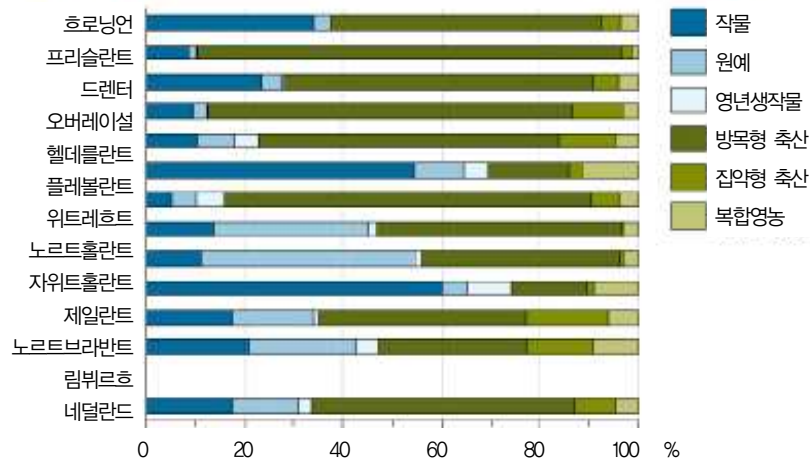
자료: LTO Nederland Fact Check(2012).

1980년 이후 초지(단기, 영년초지, 자연초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54%)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작물(28%), 사료작물(13%), 노지 원예(5%), 시설원예(0.5%) 순이다. 2012년 기준 전체 초지면적은 987,000ha로 단기목초지 192,000ha(19%), 영년초지 746,000ha(76%), 자연초지 49,000ha(5%)로 이루어져 있다. 휴경지를 포함한 경작지 면적은 1980~2000년 사이 10%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0~2012년 사이 18% 감소하여 2012년 521,000ha이다. 노지원예면적은 이와 반대로 1980~2000년 사이 약 3% 감소하였지만 2000~2012년 사이 7% 증가하여 86,000ha 수준이다. 시설원예면적은 1980~2000년 사이 20% 증가하였지만 2000~2012년 사이 5% 감소하여 약 10,000ha 수준이다.

지역별로 농업경영체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2012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방목형 축산농이 전체 지역의 3/4 이상에서 대표적인 농업경영체 유형이다. 특히 프리슬란트는 그 비중이 전체의 86%로 방목형 축산농 비중이 가장 높다. 작물재배농은 플레볼란트(54%)와 제일란트(60%)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원예농은 노르트홀란트(31%)와 자위트홀란트(43%)에 가장 많이 위치한다. 복합

농은 상대적으로 플레볼란트(11%), 제일란트(9%), 림뷔르흐(9%)에 많이 분포해 있다 (Compendium voor de Leefomgeving, 2013).

그림 4 주별 농업경영체 유형 분포



자료: LTO Nederland Fact Check(2012).

3.3. 농업경영체 구조

3.3.1. 경계규모 및 연령별 농업경영체 현황

네덜란드 농업경영체 수는 경영규모의 확대 및 폐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0년 30만 개에서 2012년 68,810개로 77% 이상 감소하였다. 2011~2012년 사이 농업경영체 수는 2.2%(약 1,600개의 농업경영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감소 수치(2.9%)보다는 낮은 편이다. <표 4>는 2003년과 2010년 사이 네덜란드 농업경영체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2003년에 비해 2010년 농업경영체수는 감소하여 농업경영체당 경작지(Utilized Agricultural Area, UAA) 면적규모가 약 10.6%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농업경영체당 평균 경작지는 26.8ha이다(LTO Nederland Fact Check, 2012). 특히 50ha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증가하여 2010년 전체 농업경영체의 15.7%를 차지하였다.

경제규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분류하여 보면, 10만 유로(한화 약 1억4천만 원)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53.9%이다. 2006~2010년 사이 농업경영체의 평균 농업소득은 42,500유로였고, 2011년 41,400유로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64,000유로로 증가하였다<부록 1 참조>.

표 4 2003년, 2010년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 현황

규모별 농업경영체 현황	2003년		2010년		
	경영체 수	비중(%)	경영체 수	비중(%)	
경작지 (UAA)	< 2 ha	12,620	14.8	9,700	13.4
	2-5 ha	12,680	14.8	11,000	15.2
	5-10 ha	12,150	14.2	10,260	14.2
	10-20 ha	13,610	15.9	10,820	15.0
	20-30 ha	9,980	11.7	7,540	10.4
	30-50 ha	14,060	16.4	11,680	16.1
	50-100 ha	8,630	10.1	9,130	12.6
> 100 ha	1,770	2.1	2,210	3.1	
경제규모 (유로)	0			120	0.2
	< 2,000			60	0.1
	< 4,000			1,880	2.6
	< 8,000			6,670	9.2
	< 15,000			6,480	9.0
	< 25,000			4,890	6.8
	< 50,000			6,360	8.8
	< 100,000			6,920	9.6
	< 250,000			16,970	23.5
	< 500,000			13,370	18.5
⇒ 500,000			8,600	11.9	
가족단위 (LSU)	0	27,490	32.2	21,910	30.3
	0-5	7,330	8.6	6,330	8.8
	5-10	5,130	6.0	5,230	7.2
	10-15	3,420	4.0	2,890	4.0
	15-20	2,250	2.6	1,950	2.7
	20-50	8,100	9.5	6,640	9.2
	50-100	13,080	15.3	9,030	12.5
	100-500	16,960	19.8	15,770	21.8
	> 500	1,740	2.0	2,580	3.6
연령별	< 35	6,230	7.3	2,610	3.6
	35-44	21,620	25.3	14,850	20.5
	45-54	22,450	26.3	22,760	31.5
	55-64	21,650	25.3	18,890	26.1
	> 64	13,560	15.9	13,220	18.3
전체 경영체 수	85,500	100.0	72,340	100.0	
UAA (천 ha)	2,007		1,872		
경영체당 UAA	23.5		25.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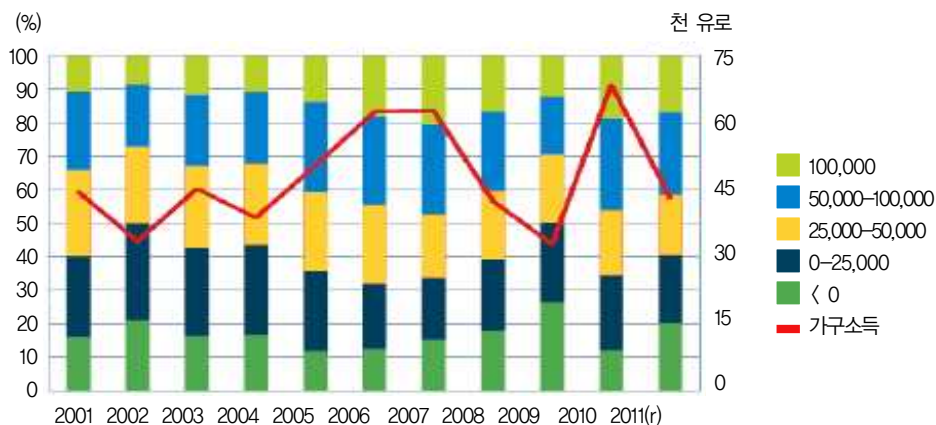
2012년 기준 농업경영체의 평균 농업 외 소득은 19,000유로로 경영체 총소득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2012년 농업경영체당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더한 총소득은 평균 83,000

유로(약 1억1,982만 원)으로 2006~2010년 사이 평균 61,600유로보다 34.7% 증가하였다.

가축사육 두수로 경영체를 분류하여 보면 가축사육 규모에서도 규모화가 진행되어 2010년 기준 100LSU(Live Stock Unit, 가축단위)¹⁰⁾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경영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35세 이상 65세 미만이 농업 경영의 핵심 주축으로 전체의 78.1%이며, 65세 이상이 전체의 18.3%에 불과하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은 연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농업수출이 발달하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은 64,000 유로로 증가하였지만 2011년 평균 농업소득은 41,000 유로로 2010년보다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0년은 평균 농업소득이 약 70,000유로로 세계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보다 30,000 유로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06~2007년보다도 더 높은 규모이다. 그리고 음의 소득을 가진 농업경영체의 비중이 약 10%로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2011년에는 평균 농업소득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유로 이상의 농업경영체 비중이 2010년과 유사하게 전체의 약 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경영체의 평균 농업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소득을 가진 경영체의 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100,000유로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약 20%로 2011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5 2001~2011년 농업소득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 변화



자료: LEI, *Landbouw-Economisch Bericht 2012* LEI.

10) 가축단위: 종(種)과 수명길이 등이 다양한 축종의 수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축종별 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 사육단위(livestock unit, LSU)로 변환함.

표 5 2001~2012년 농업경영체 소득 구조 (평균)

단위: 천 유로

구 분	2001~2005	2006~2010	2011	2012
총 수익	275.0	388.2	496.7	534.0
그 중 농업생산	95.0	90.6	90.4	90.5
보조금	3.2	5.0	4.4	4.2
부차적 활동	1.8	4.4	5.2	5.3
지불된 비용 및 감가상각	239.1	345.5	455.4	470.0
특별수익 및 특별비용	1.3	-0.3	0.0	0.0
운영소득(농업소득)	37.1	42.5	41.4	64.0
무임금 노동력 당 보상금	25.9	29.6	28.4	44.0
농업 외 소득	11.8	19.1	19.5	19.0
그 중 노동소득	5.7	9.0	10.0	10.0
기타소득	6.1	10.1	9.5	9.0
총 소득	48.9	61.6	60.9	83.0
세금	3.5	5.5	3.7	4.0
가구 지출	37.2	47.2	52.5	52.0
저축	8.1	8.9	4.7	27.0

자료: LEI,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Summary*, LEI.

<표 5>는 농업경영체의 평균적인 소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기준 농업경영체의 평균 총 수익은 534천 유로로 여기에서 지출 비용을 제외한 평균 농업소득은 64천 유로이다. 한편 농업외소득은 19천 유로로 경영체의 평균 총소득은 83천 유로이다. 농업경영체의 소득 규모는 해마다 변동성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외소득 규모는 농업소득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3.3.2. 주된 영농활동별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경영체를 품목별 표준산출물(Standard Output, SO)¹¹⁾ 규모에 따른 대표적인 농업활동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낙농, 기타 방목형 축산농, 집약형 축산농을 포함한 축산농이 전체 68,810개 중 42,373개로 전체의 약 61.5%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모든 농업경영체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축산농업경영체 중 낙농과 방목형 축산농의 경우 감소추세가 미미하지만 집약형 축산농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6.1% 감소하였다<그림 6 참조>. 작물농과 방목형 축산농의 경우 2000~2012년 사이 1/5 미만 감소하였지만, 원예농을 포함한 집약농의 경우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특히 동기

11) 표준산출물(SO)이란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물·가축별 1ha당·두수당 연간 표준 산출액으로 직접지불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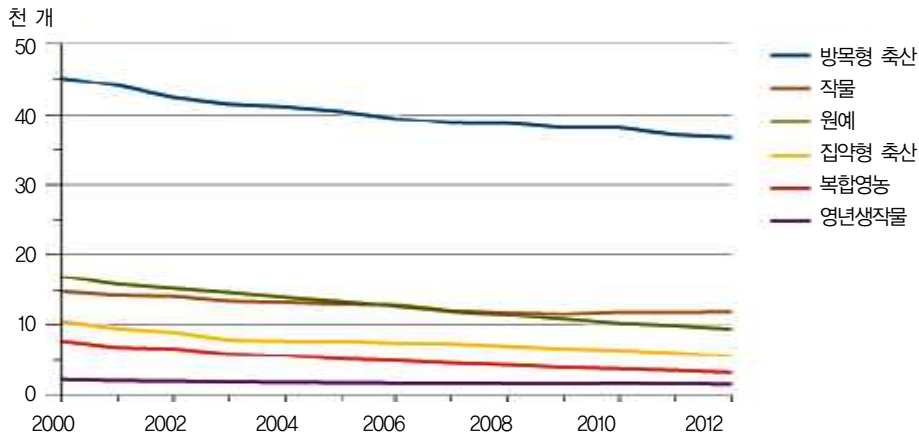
간 복합농이 7,751개에서 3,329개로 57% 감소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농업경영체가 보다 전문화·규모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2000~2012년 영농활동별 농업경영체 유형 변화주

유형	농업경영체 수				2011년 대비 2012년 변화(%)
	2000년	2005년	2011년	2012년	
시설원에 및 버섯재배농	8,804	6,644	4,317	4,049	-6.2
노지원예농	10,489	8,686	7,362	7,073	-3.9
작물농	14,799	13,060	11,953	12,016	0.5
낙농	23,280	19,713	17,236	16,902	-1.9
기타 방목형 축산농	20,208	19,191	18,466	18,477	-0.1
집약형 축산농	12,058	9,243	7,446	6,994	-6.1
복합농	7,751	5,213	3,612	3,329	-7.8
전체 농업경영체	97,389	81,750	70,392	68,810	-2.2

주: 농업경영체 유형은 품목별 표준산출물(Standard Output, SO)규모에 의해 결정됨.
 자료: LEI, *Landbouw-Economisch Bericht 2013*, LEI.

그림 6 영농활동별 농업경영체 수



자료: LTO Nederland Fact Check(2012).

3.4. 주요 품목별 생산 연왕

3.4.1. 투입요소

<표 7>은 네덜란드 농업의 투입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2010년 대비 2011년 투입요소 규모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부문은 비료 및 토양개량품(33.5%), 사료(21.2%) 등이며,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투입요소 사용 규모에 있어 큰 변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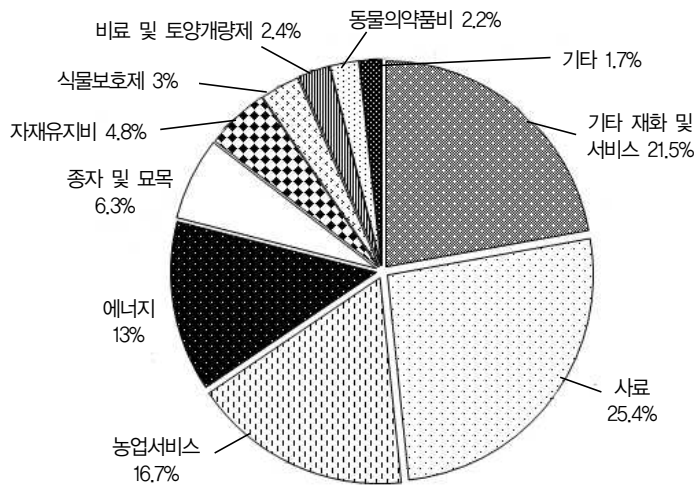
보이지 않았다. <그림 7>은 2008~2012년 사이 투입요소별 중간소비 평균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사료(25.4%), 기타 재화 및 서비스(21.5%), 농업서비스(16.7%), 에너지(1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농업 투입요소별 소요액

투입물 구성요소	2010년	2011년	2012년(추정치)	2010년 대비 2011년 변화	2011년 대비 2012년 변화
	백만 유로			변화율 %	
종자 및 묘목	1,344.5	1,442.7	1,413.8	7.3	-2.0
에너지	2,362.6	2,559.8	2,610.3	8.4	2.0
비료 및 토양개량품	361.1	482.1	494.0	33.5	2.5
작물보호제품	431.5	427.5	437.8	-0.9	2.4
동물의약품비	354.0	367.0	378.1	3.7	3.0
사료	4,399.2	5,333.4	5,472.7	21.2	2.6
자재유지비	750.4	749.7	766.2	-0.1	2.2
건물유지비	125.8	123.6	126.0	-1.7	1.9
농업서비스	2,448.8	2,471.2	2,508.3	0.9	1.5
기타 재화 및 서비스	3,139.4	3,126.1	3,204.2	-0.4	2.5
총 중간재소비	16,069.0	17,402.2	17,799.0	8.3	2.3
교정자본소비	3,219.6	3,272.8	3,272.4	1.7	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그림 7 2008~2012년 투입요소별 중간소비 평균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3.4.2. 농업 생산

네덜란드의 주요 농산품은 축산을 비롯하여 화훼, 곡물, 감자, 사탕무, 과일 및 채소 등이다. <표 8>은 2010~2012년 작물 및 축산의 품목별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기준 작물 생산액 124억7,200만 유로, 축산 생산액 103억6,600만 유로로 작물과 축산의 생산 비중은 5.5:4.5이다. 농업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채소 및 원예 농산품으로 2012년 기준 전체 농업 생산액의 37.1%를 생산하였다. 그 외 작물에서 생산액 비중이 높은 것은 감자(5.5%), 사료작물(3.2%) 등이다. 축산에서 생산액 비중이 높은 것은 우유(18%), 돼지(12.7%), 소(6.8%), 가금류(3.4%) 등으로 네덜란드의 낙농업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2008~2012년 사이 네덜란드 농산품 품목별 평균 생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채소 및 원예(39.2%), 우유(20%), 돼지(12%), 소(7.6%), 감자(4.5%) 등이 네덜란드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EU 27개국 농업 생산에서 네덜란드 농업 생산액 비중은 6.2%이지만 네덜란드의 채소 및 원예농산품(17.5%), 감자(13.5%), 우유(8.1%), 돼지(7.8%)는 EU내에서 높은 비중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네덜란드 품목별 생산액

농업생산 구성요소	2010년	2011년	2012년(추정치)		
	백만 유로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전체 대비 %	EU 27개국 대비 %
곡물(사리일) :	266.3	279.6	375.4	1.6	0.6
밀 및 스펀트 ¹	211.4	218.6	306.1	1.3	1.1
호밀 및 메슬린 ²	1.7	1.3	2.3	0.0	0.2
보리	30.6	37.0	42.7	0.2	0.4
귀리 및 여름곡물혼합물	0.9	1.1	1.5	0.0	0.1
옥수수	19.3	19.4	20.4	0.1	0.2
쌀	-	-	-	0.0	0.0
기타 곡물	2.5	2.2	2.3	0.0	0.1
공예작물 :	335.7	398.5	427.9	1.9	2.1
유지종자 및 유지과일	3.0	2.0	2.4	0.0	0.0
단백질작물	81.8	63.0	77.1	0.3	9.4
원료 담배	-	-	-	0.0	0.0
사탕무	243.1	327.3	338.1	1.5	8.6
기타공예작물	7.9	6.3	10.3	0.0	0.4
사료작물	541.9	746.2	749.4	3.2	2.6
채소 및 원예 농산품	8,706.4	8,199.5	8,582.8	37.1	17.5
감자	1,276.7	1,186.9	1,277.9	5.5	13.5
과일	595.5	619.0	680.6	2.9	2.9
와인	-	-	-	0.0	0.0
올리브유	-	-	-	0.0	0.0

표 8 네덜란드 품목별 생산액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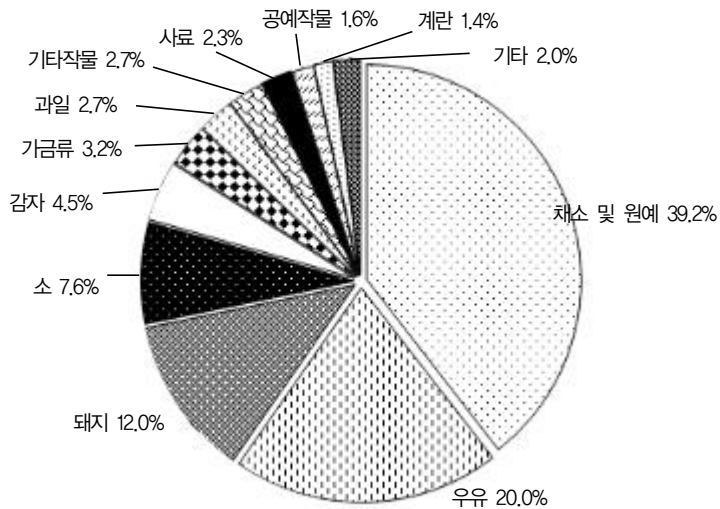
농업생산 구성요소	2010년		2012년(추정치)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전체 대비 %	EU 27개국 대비%
기타 농산물	507.7	632.6	648.5	2.8	28.2
작물 생산액	12,230.1	12,062.4	12,742.4	55.1	6.1
축산물:	4,765.0	5,055.5	5,473.1	23.7	5.4
소	1,431.0	1,511.0	1,563.1	6.8	4.7
돼지	2,390.0	2,649.0	2,933.5	12.7	7.8
말	13.6	15.0	16.5	0.1	1.9
양, 염소	150.1	146.7	155.9	0.7	2.8
가금류	753.0	707.4	776.1	3.4	3.7
기타 가축	27.4	26.5	28.0	0.1	1.1
기타 축산물	4,570.4	4,987.8	4,893.8	21.2	7.6
우유	3,992.0	4,425.0	4,157.3	18.0	8.1
계란	419.0	370.5	539.3	2.3	5.4
기타	159.4	192.3	197.2	0.9	6.6
축산 생산액	9,335.4	10,043.3	10,366.9	44.9	6.3
농업 생산액	21,565.6	22,105.7	23,109.3	100.0	6.2
총부가가치(기본가격)	8,673.9	8,030.5	8,646.7	-	5.4

주1: 스펀트(spell): 탈곡작업을 한 후에도 아직 겉질이 남아있는 상태의 갈색의 작은 곡립을 가지고 있는 소맥의 일종(수험 관세품목분류).

주2: 메슬린(meslin): 소맥과 호밀을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수험 관세품목분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그림 8 2008~2012년 네덜란드 농업 생산액 구성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표 9>는 네덜란드의 전체적인 농업 소득 구조를 나타낸다. 농산업은 크게 작물, 축산, 농업서비스, 이차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2012년 농산업 생산액은 264억4,500만 유로에 달했다. 여기서 중간 소비액을 제외한 것이 총부가가치로 86억4,600만 유로이다.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더한 것이 농업부문 실제 소득으로 2012년 기준 57억3,800만 유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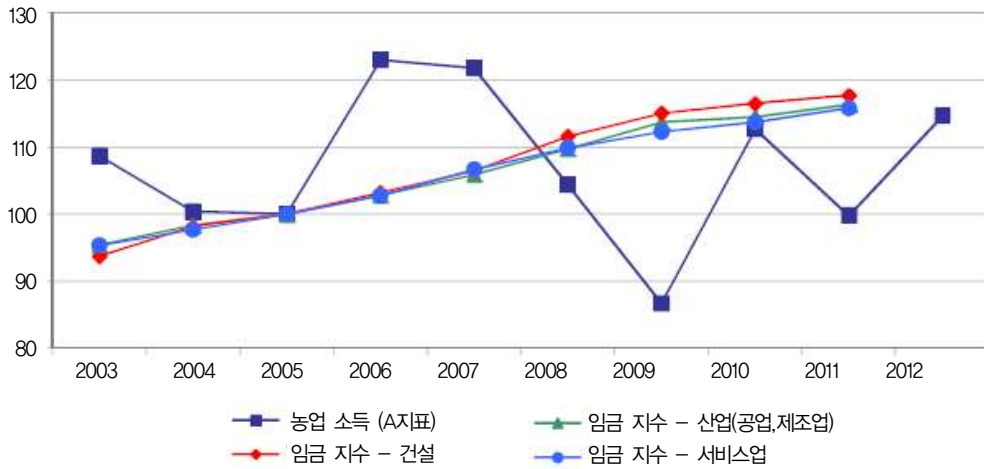
<그림 9>는 농업소득을 여타 산업 부문의 임금지수와 비교한 것으로 농업소득지수는 타 산업에 비해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2003~2007년 사이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 같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8~2009년 사이 급격히 하락한 뒤 2010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업부문 노동력 구성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농업종사자 수와 함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임금근로자의 수는 최근 10년 사이 비교적 안정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수의 감소로 전체 농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9 네덜란드 농업 소득 구조

가치(기본가격)	2010년	2011년	2012년 (추정치)	2010년 대비 2011년 변화	2011년 대비 2012년 변화
	백만 유로			변화율 %	
농산업 생산액:	24,842.0	25,437.7	26,445.7	2.4	4.0
작물	12,238.6	12,062.4	12,742.4	-1.4	5.6
축산:	9,319.4	10,043.3	10,366.9	7.8	3.2
축산품(육류)	4,749.0	5,055.5	5,473.1	6.5	8.3
기타 축산품(계란, 우유 등)	4,570.4	4,987.8	4,893.8	9.1	-1.9
농업 서비스	2,821.0	2,852.0	2,894.3	1.1	1.5
이차적 활동	463.0	475.0	442.1	2.6	-6.9
- 중간 소비	16,069.0	17,402.2	17,799.0	8.3	2.3
= 총부가가치(기본가격)	8,773.0	8,030.5	8,646.7	-8.5	7.7
- 고정자본소비	3,219.6	3,272.8	3,272.4	1.7	0.0
- 세금	487.8	538.6	542.0	10.4	0.6
+ 보조금	760.6	947.8	951.6	24.6	0.4
= 요소 소득	5,826.3	5,166.9	5,738.8	-11.3	11.9
농업소득(2005년=100)	112.7	99.8	114.7	-11.4	14.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그림 9 여타 산업 대비 농업부문 소득 변화



주: A지표란 농업 각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 AWU)의 실질순부가치임. 실질순부가치(소득)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더함으로 계산됨. AWU란 한명의 풀타임 고용 노동력에 해당하는 크기의 노동력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3.5. 농식품 무역¹²⁾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은 2001~2009년 동안 꾸준히 농업총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약 65%를 담당하였으며, 2011년 농업총부가가치의 67.3%, 농업부문 고용의 67.7%를 창출하는 등 농업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11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723억 유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은 2011년 기준 네덜란드의 농식품 무역 구조를 나타낸다. 농식품 수출은 총수출의 15.1%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 중 최종재화 형태의 수출이 전체 농식품 수출의 6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식품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 농식품 수입액은 473억 유로로 농식품 수입 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2011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1%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최종재화 형태의 수입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농식품 무역수지는 249억 유로로 최종재의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가운데 원재료 형태의 농산물에서는 약 34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다.

12) 본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13.5) 자료 및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LEI)의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10 2011년 네덜란드 농식품 무역 현황

농식품 부문별	총 무역		EU국가 간 무역		EU이외 국가 간 무역	
	백만 유로	백만 유로	2010년 대비 2011년 변화 %	백만 유로	2010년 대비 2011년 변화 %	
수출						
농산물	3,722.8	2,971.9	-0.9%	751.0	-25.5%	
중간재	18,707.1	14,935.3	13.2%	3,771.9	15.7%	
최종재	48,377.0	38,745.5	6.9%	9,631.6	14.1%	
기타재 ^주	1,473.5	1,107.8	8.0%	365.7	15.5%	
총 농식품 수출	72,280.5	57,760.4	8.1%	14,520.1	11.4%	
전체 수출 중 %	15.1%	15.7%	-	13.2%	-	
수입						
농산물	7,081.1	2,556.4	12.6%	4,524.7	12.0%	
중간재	13,874.5	7,053.3	31.6%	6,821.2	26.4%	
최종재	25,449.7	16,981.7	12.4%	8,467.9	10.2%	
기타재	930.5	837.9	0.5%	92.6	7.6%	
총 농식품 수입	47,335.7	27,429.3	16.4%	19,906.4	15.7%	
전체 수입 중 %	11.0%	13.8%	-	8.6%	-	
무역수지						
농산물	-3,358.3	415.5	-	-3,773.8	-	
중간재	4,832.7	7,882.0	-	-3,049.3	-	
최종재	22,927.4	21,763.7	-	1,163.7	-	
기타재	543.0	269.8	-	273.2	-	
총 농식품 무역수지	24,944.8	30,331.1	-	-5,386.3	-	

주: 기타재화란 생수, 향료와 같이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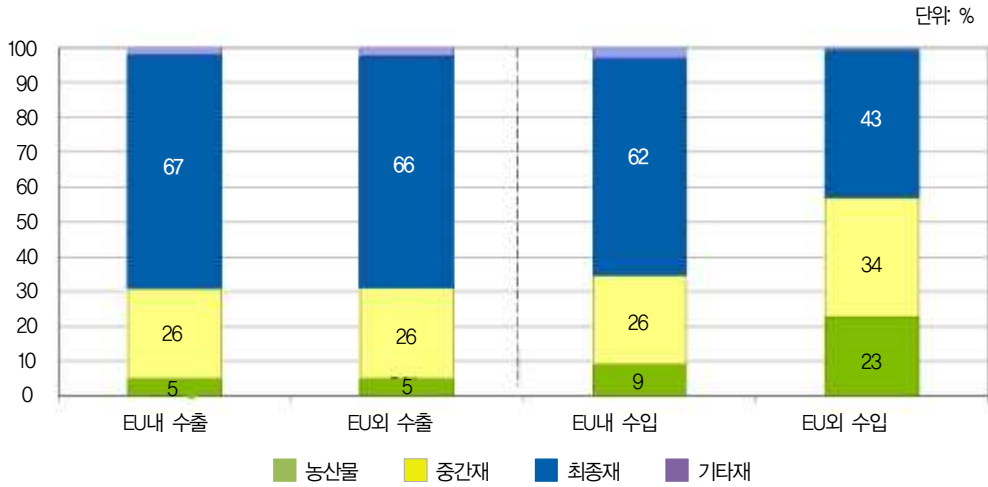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네덜란드의 농식품 무역 상대국은 크게 EU국가와 EU이외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1년 네덜란드의 농식품 무역은 EU국가 간 수출이 80%, 수입이 약 60%로 EU내 무역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림 10>은 농식품 무역 구조를 EU국가와 EU이외 국가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구성하는 형태별 재화 비중은 EU국가와 EU이외 국가 간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농식품 수입의 경우 EU이외 국가의 경우 EU국가와의 수입 구성에 비해 최종재의 비중이 낮고, 중간재와 농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EU이외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유지종자, 동물사료, 과일 및 열대과일, 커피, 카카오콩이며, 수출품은 유제품, 음료, 커피, 차, 카카오 제품 등이다.

네덜란드의 농식품 무역 흑자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49억 유로(한화 약 35조 9,281억 원), 이 흑자는 EU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였고 EU이외 국가 간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였다. EU국가를 EU 15개국¹³⁾과 EU 12개국¹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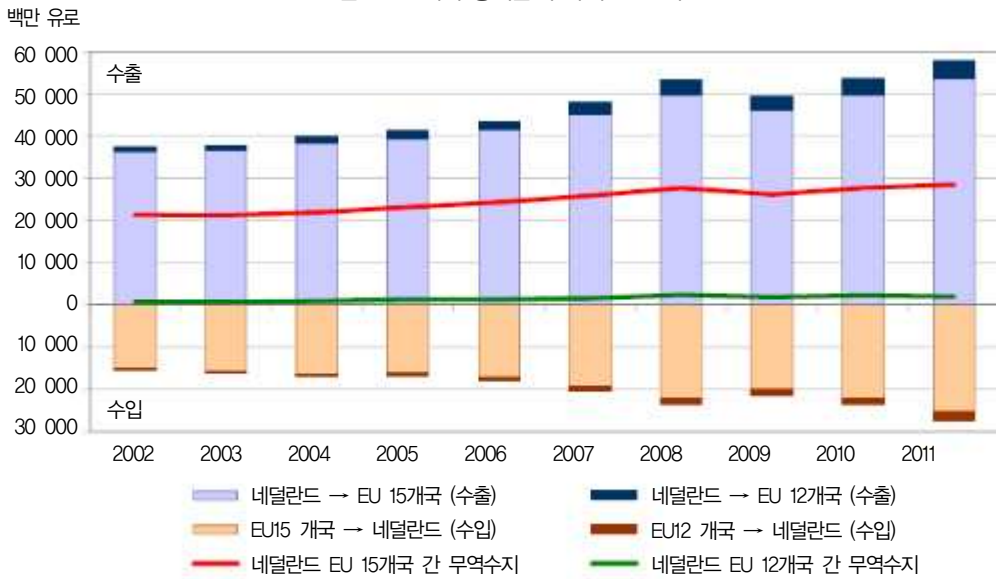
13) EU 15개국: 2004년 이전 EU 회원국에 포함된 국가로 벨기에(BE), 덴마크(DK), 독일(DE), 아일랜드(IE), 그리스(EL), 스페인(ES), 프랑스(FR), 이탈리아(IT), 룩셈부르크(LU), 네덜란드(NL), 오스트리아(AT), 포르투갈(PT), 핀란드(FI), 스웨덴

그림 10 2011년 EU내외·부문별 농식품 무역 구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그림 11 EU내외 농식품 무역 구조 변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5).

(SE, 영국(UK) 등임.

14) EU 12개국: 2004년에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체코(CZ), 에스토니아(EE), 키프로스(CY),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헝가리(HU), 몰타(MT), 폴란드(PL),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등 10개국과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BG), 루마니아(RO) 2개국을 포함

EU 15개국 간 무역 비중이 월등히 높고 여기에서 상당한 흑자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농식품 무역국은 독일로서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의 26%, 수입의 19%를 차지한다. 대 독일 주요 수출품은 채소 및 과일, 장식용 식물, 유제품, 계란, 육류 등이며, 유제품의 경우 식품산업의 원료가 되는 신선우유, 유청, 탈지분유를 수출하였다. 네덜란드의 다른 주요 농식품 무역 상대국은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으로 EU내 주 수출품은 육류, 장식용 농산물, 유제품, 지방류, 사료 등이다<부록 2 참조>.

4. 주요 농업 · 농촌정책¹⁵⁾

4.1. 농촌 및 자연정책

4.1.1. 농촌정책

2004년에 작성된 농촌거주의제(Agenda Vitaal Platteland, Agenda for a Living Countryside)는 농촌생활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2007~2013년 사이 본 과제 실행에 대해 각 개별 주정부와 행정협정을 마무리하였다. 본 정책의 예산은 농촌투자예산(Investeringsbudget Landelijk Gebied, ILG; the Rural Area Investment Budget) 재원으로 지원된다. 2007~2013년 사이 정부예산은 약 35억 유로였다. Rutte I 정부가 실행한 경제정책(measure)에 따르면(2010년 10월~2012년 4월) 중앙 정부는 개별정부와의 ILG행정협정을 종결하고 이와 더불어 자연정책(nature policy)을 분권화하려고 한다. 주들은 자연 관리에 예산을 할당하여 ILG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무적인 법적 책임 수행과 분권화된 자연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의 약 600백만 유로를 네덜란드의 2007~2013년 농촌개발프로그램(RDP II)에 할당하였다. 하지만 2007~2011년 사이 예산 집행 비율이 할당 예산의 약 60%에 불과하였다. 특히 '농업 및 산림부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평균 예산 실행비율인 40% 미만이다. '환경 및 농촌지역 향상 프로그램과 'LEADER'의 예산 집행비율이 약 70%로 보다 나은 예산 실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EAFRD예산의 충분하지 못한 실행은 지속적인 금융위기와 자연정책에서 정부의 경제조치에 원인이 있다. EAFRD 예산을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가 계획되어 2011년에 시행되었다. 여러 조치가 실행된 후 예산실행 속도는 정상 속도를 되찾고 있다.

15) 본 내용은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LEI)의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를 참고하여 작성함.

현재 2014~2020년 네덜란드 농촌개발프로그램(RDP III)에 대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네덜란드는 농업부문의 내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관광기반시설과 마을재생계획과 같은 일반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20년 CAP 개혁이 늦게 타결되어 RDP III는 2014년 초부터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4.1.2. 물 안전 정책

2010년에 시작된 델타프로그램(Delta Programme)은 홍수로부터 현재와 후세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적합한 담수(fresh water)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해수면 상승, 강물배출의 변동성, 낮아지는 지반면, 염류화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델타시나리오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네덜란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예로 농업분야는 담수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요인은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네덜란드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긴 재배기간과 높은 온도로 농업 부문의 잠재적 생산량을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농업부문은 높은 적응성과 혁신역량으로 델타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정책은 토양에서 부엽토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식물 뿌리층에서 습기 완충 능력을 증가시키고, 세류관개 및 기타기술을 사용하여 관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개별농가 및 농장 그룹별로 물 저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담수공급에 변화가 생길지라도 네덜란드 농업부문의 발전을 지속시킬 것이다.

4.1.3. 자연정책

녹지의 구입 및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토생태네트워크(National Ecological Network, NEN)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NEN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577,000 ha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7,000ha 증가한 것이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속도로 NEN의 확장이 지속되어야 2021년까지 계획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녹지 관리는 자연보전기관과 Staatsbosbeheer, 네덜란드산림서비스(Dutch Forestry Service)로 이전되었다. Rutte I 정부가 자연정책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은 Rutte II 정부에서 철회되었고, 2013년에는 2억 유로의 예산이 자연정책 집행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다.

자연정책의 분권화 실행 후에 정부는 다음 단계로 2014년 초에 국회에 자연정책의

새로운 장기 비전을 제출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 변화는 첫째, 민간, 회사, 사회기관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정원(community gardens), 농촌지역관리를 위한 민간 농업인 단체, 자사제품의 생태발자국을 줄이려는 사업체 등을 포함한다. 둘째,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가 네덜란드 생태계에 야기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자연과 기타 사회적 이익의 보다 적절한 조합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생태적 이득 실행가능성에 대한 증가하는 인지도와 관계되어 있다.

정부는 네덜란드 농업자원관리를 현대화 하고자 한다. 정부는 주정부와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현 농업자연관리 시스템을 개정할 계획이다. 본 개정은 지역 단체들이 관련 지역의 관리에 대해 협동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체의 각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 맞춤형 접근 시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농업자연관리 면적은 최근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 감소세가 멈추었다. 2010년 말 농업자연관리 하에 있는 면적은 62,000ha로 이중 약 45%가 단체관리 하에 있다. 이러한 단체관리체계는 종종 농업자연관리협업체(agricultural nature management cooperatives, ANCs)에 의해 수행된다. 네덜란드에는 현재 125~150개 사이의 ANCs가 존재한다. 지난 15년간 급속히 증가한 ANCs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체관리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특히 녹지의 새 관리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태적 효과를 증가시켰다.

4.2. 공동농업정책(CAP)¹⁶⁾

유럽연합은 1958년부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초기 목표는 안정된 시장에서 EU농업인의 합리적인 소득과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 후 CAP은 지역 및 국제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번 개정되었다. EU는 지난 9월 24일 '2014~2020년 CAP 개혁안'을 최종 타결한바 있다. 2011년 네덜란드의 직접지불금 규모는 817,433천 유로, 시장조치는 129,187천 유로, 농촌개발은 90,406천 유로였다. 네덜란드의 CAP 지불 구조를 살펴보면 직접지불금이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조치(22%), 농촌개발(7%) 순으로 EU 27개국의 평균적인¹⁷⁾ 구조에 비해 시장조치 지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도 EU 회원국으로써 CAP 정책 방향과 기조를 함께 한다. 2014~2020년

16) European Commission자료 및 세계농업 155호, 159호 해외농업농정동향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함.

17) EU 27개국 평균 지불 구조: 직접지불금 68%, 시장조치 8%, 농촌개발 23%.

CAP 개혁은 농업의 공익성·환경성 및 직접지불금 형평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직접지불금은 수혜 농업인 및 국가 간 내부적 수렴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소액으로 수령하는 농가의 직접지불금 규모가 2019년까지 해당국 또는 지역의 1ha당 평균 직접지불금의 60%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직접지불금 평균이 EU평균의 90% 이하인 국가들의 직불금 규모는 각 국가의 현재비율과 EU 평균의 90% 간 차이의 1/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소위 체감 계획(degressivity plan)에 의해 15만 유로 이상의 직불금은 최저 5%의 의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향후 EU의 직불금은 EU내 국가 및 농업인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재분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각 회원국 제1축 직접지불금 예산의 30%는 녹색조치계획하에 환경보전용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직접지불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물 다양화 기준, 영구초지유지 기준, 생태중적지역 설정 등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제2축 농촌정책개발 예산의 30%를 기후변화완화 및 토지관리 관련 조치 등과 같은 환경조치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는 2013년 9월 24일 CAP 최종타결을 통해 축간 재원 이전 비율을 15%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 EU 평균직불금의 90% 이하를 수령하는 회원국의 경우 25%까지 상향 전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현재 1ha당 평균 보조비율이 EU 평균 이상인 국가로 2015~2020년 사이 제1축 직접지불금 예산이 약 6.2%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축간 재원 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시 네덜란드의 제2축 농촌개발정책 예산은 2007~2013년에 비해 2014~2020년 2.38% 증가할 전망이다.

5. 결론

네덜란드는 ① 충분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식품 제공 ② 농촌 지역 활성화, ③ 농업 부문별 생산의 지속가능성, ④ 농업 경쟁력 강화를 공동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LTO Nederland, 2013). 또한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41%에 불과하여 집약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작물보호제 및 비료 적정 사용량 정책을 추진하고 축산 오염물질 감축 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농업 부문 연구개발비용이 농업 GDP의 4% 이상으로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덴마크, 독일, 보츠와나에 이어 세계 7위로 농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FAO, 2013).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농업부문 연구개발 지출이 농

업GDP의 2% 초반대로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업부문 연구 강화를 통해 세계화에 대응한 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rkhout, P. en P. Roza(red.). 2012. *Landbouw-Economisch Bericht 2012*. LEI.
<http://edepot.wur.nl/213938>
- Berkhout, P., H. Silvis en I. Terluin(red.). 2013. *Landbouw-Economisch Bericht 2013*. LEI.
<http://edepot.wur.nl/260632>
- Berkhout, P. and P. Roza(ed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2 of the Netherlands: Summary*,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
<http://edepot.wur.nl/221780>
- Berkhout, P., H. Silvis and I. Terluin(eds.). 2013.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Summary*,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
<http://www.landbouweconomischbericht.nl/download/summary-2013-pdf.html>
- Compendium voor de Leefomgeving. 2013. *Land- en tuinbouw: ruimtelijke spreiding, grondgebruik en aantal bedrijven, 1980-2012*. Compendium voor de Leefomgeving
<http://www.compendiumvoordeleefomgeving.nl/indicatoren/nl2119-Agrarisch-grondgebruik.html?i=11-61>
- European Commission, 2013.5, *Agricultural Policy Perspectives Member States factsheets - May 2013 - Netherlands*, European Commissions.
http://ec.europa.eu/agriculture/statistics/factsheets/pdf/nl_en.pdf
- FAO. 2013. *FAO Statistical Yearbook 2013, World Food and Agriculture*. FAO.
- Holland. 2013. *Holland Compared, Facts and Figures*, 2013. Holland.
- Verkerk, K., L. Groot & J. Luiten. 2012. *LTO Nederland Fact Check*. LTO Nederland.

참고사이트

- IMF (www.imf.org)
- Wikipedia (en.wikipedia.org)
- CIA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l.html)
- Holland (www.holland.com)
- European Commission (ec.europa.eu)
- OECD (www.oecd.org)
- LEI Wageningen UR (www.wageningenur.nl)

부록 1 <2012년 네덜란드 농업 지표>

농업 구조

항목	값	비고
농업경영체 수	68,810	2000~2012년 사이 농업경영체 수는 29%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경영규모의 증가 및 일부 경영체 폐쇄에 따른 것임
곡물농 수	12,016	
원예농 수	11,122	시설채소 및 버섯재배농: 4,409/노지원예농: 7,073
방목형축산농 수	36,682	낙농: 16,902/소: 1,333/양: 4,298/염소: 356
돼지 및 닭 경영농 수	5,661	모돈: 1,041/돼자: 2,042/신란계: 669/육계: 428
복합농 수	3,329	
농업 1차 산업 부문 고용(천 명)	161	무임금 가족노동력(57%), 정규직원(27%), 임시직원(17%)
재배면적 (백만 ha)	1.84	2000년 1.975 백만 ha
유기농지	58,000 ha	전체 농지의 3.2% 수준

농업 생산

항목	값	비고
농업총생산(백만 유로)	26,511	2011년 농업총생산액보다 4% 증가
순부가가치(백만 유로)	5,805	2010년: 5,638, 2011년: 5,167
2010년 농식품 총부가가치 (10억 유로)	52	네덜란드 전체 경제의 10%, 총고용의 10.2% 담당 농산업 중 1차산업은 농식품 부문 고용의 22%, 부가가치의 13% 담당

수출입

항목	값	비고
농산물 수출(10억 유로)	76.2	2011년 대비 4.4% 증가
농산물 수입(10억 유로)	51.3	2011년 대비 5.7% 증가
농산물 무역 흑자(10억 유로)	24.9	2011년 대비 2% 증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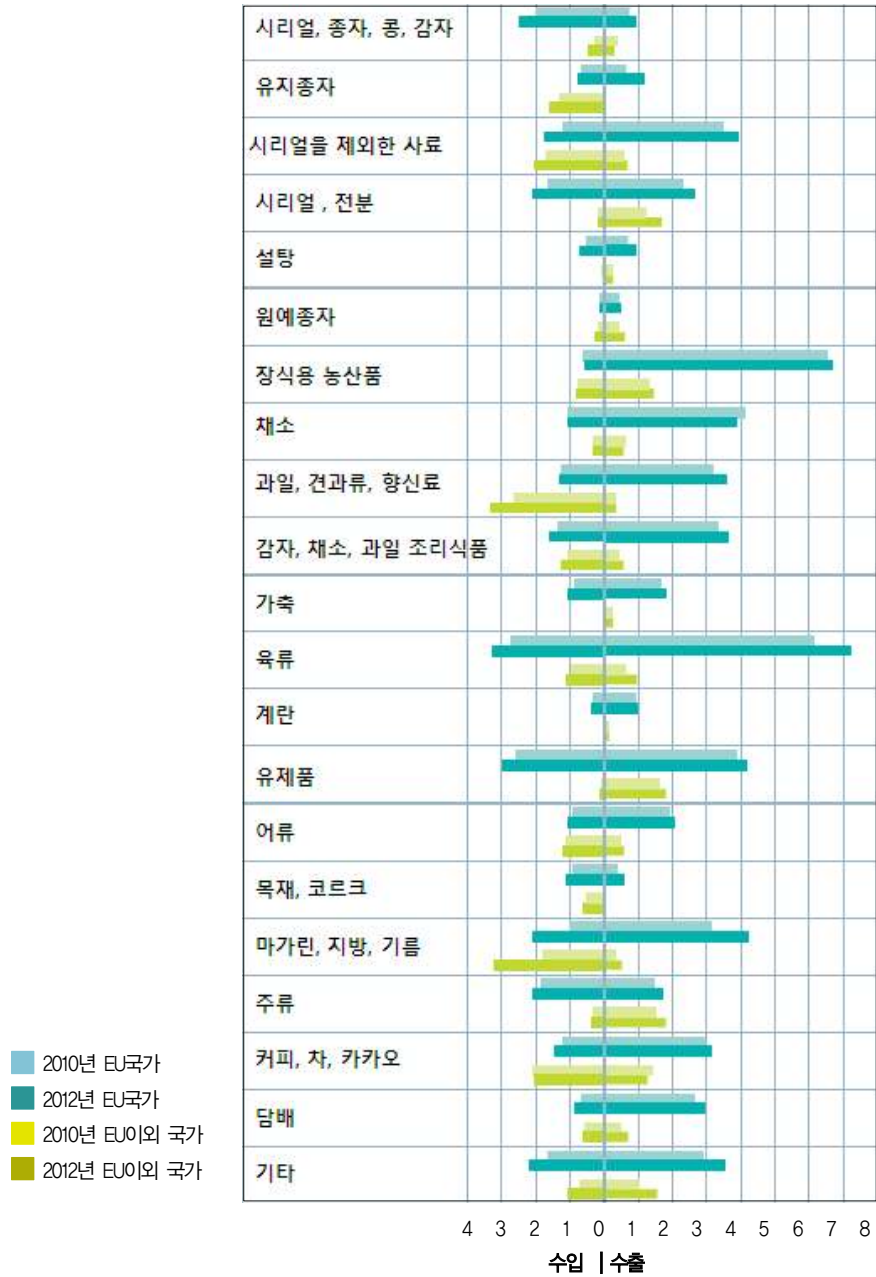
항목	값	비고
경영체 당 농업소득 (천 유로)	64.0	2011년: 41.4 / 2006~2010년 평균: 42.5
경영체 당 농업외소득 (천 유로)	19.0	2011년: 19.5 / 2006~2010년 평균: 19.1
경영체 당 총 소득 (천 유로)	83.0	2011년 : 60.9 / 2006~2010년 평균: 61.6
농업 및 원예 평균가치 (백만 유로)	2.5	2007년 대차대조표는 약 180만 유로로 절반이 토지에 고정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함.
상환능력 (%)	66	곡물농 80% / 시설농 36%
투자 (10억 유로)	3.7	전체 지속가능한 투자액 중 20%

축산

항목	값(천 마리)	비고
젖소	1,484	1985년: 2,367 / 2000년: 1,504
소	908	2000년: 783
양	1,043	2001년: 1,293
염소	397	2001년: 221
돼지	12,234	1995년:14,397 / 2005년: 11,312
가금류	95,273	2000년: 104,015

자료: LTO Nederland Fact Check(2012).

부록 2 <2010년 및 2012년 네덜란드 EU국가, EU이외 국가 품목별 수입 및 수출, 10억 유로>



자료: LEI,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13 of the Netherlands*, LEI.